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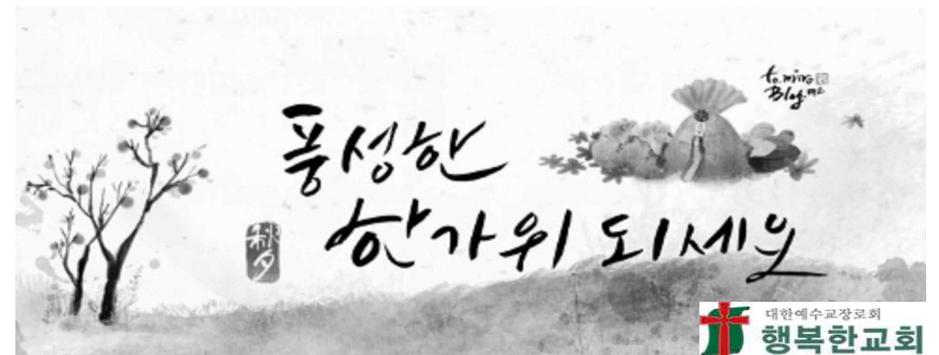


2017

중추절

# 감사예배 & 가족예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창 12:3)



# 예배순서

중추절 감사예배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예배입니다

목도 ..... 시 118:1(말씀을 인도자가 낭독) ..... 인도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다

찬송가 589장

찬송 1.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물결 뒤지며 -후렴-  
어디든지 태양 빛에 향기 진동 하도다

- 2. 추수할 것 많은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무르익은 저 곡식은
- 열심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 주소서 낮을 기다리는데 다 같이
- 3. 먼동 들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아가 때가지나 가기 전에
-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어서 추수합시다
- 4. 거뒀던인 모든 알곡 천국창조 들인 후
- 주가 베풀 잔치자리 우리 참여 하겠네

성서교독 ..... 감사절 ..... 다 같이

인도자 :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회중 :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다.

인도자 :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회중 :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인도자 : 그들이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회중 : 주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인도자 : 이에 근 심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회중 :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인도자 : 여호와와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리다.

다같이 :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다.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 같이

기도 ..... 가족중

사랑의 하나님!

금년에도 때를 따라 비와 햇빛을 내려 주셔서 추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대상을 알게 하여 주시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생활도 감사의 결실을 맺을 수 있게 해 주시고, 감사할 이유가 있어서만 감사하

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늘 주님께 감사하게 하옵소서.

##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김성수 사 박재운 곡



사랑합니 다 나의예수 님 사랑합니 다 아주많이



- 요 - 사랑합니 다 나의예수 님 사랑합니



다 그것뿐예 요 사 랑 한다 아들 아  
내 딸 아



내 가 너 를 잘 아노라 - 사 랑 한다 아들  
내 딸



아 네 게 축 복 더 하노라 -

### 가정예배 3.(어린이 예배)

#### 좋은 목자 예수님

성경읽기: 요한복음 10:7-18

찬양하기: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쉬운 성경)

- 7.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 8. 나보다 앞에 온 사람들은 다 도둑이며, 강도들이다. 양들은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
- 9. 나는 문이다. 나를 통해 들어가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사람은 들어가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며, 또 좋은 목초를 발견하기도 할 것이다.
- 10.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기 위한 목적으로 온다. 그러나 나는 양들이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 왔다."
- 11.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 12. 품삯을 받고 양을 돌보는 사람은 사실 목자가 아니며, 양도 자기 양이 아니다. 그 사람은 늑대가 오는 것을 보면, 양만 남겨 두고 멀리 도망가 버린다. 그러면 늑대는 양을 공격하여 양들을 흘트린다.
- 13. 그 사람은 단지 품삯을 받고 양을 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양을 돌보지 않는다."
- 14. "나는 선한 목자다. 나도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알아본다.
- 15.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듯이 나도 아버지를 안다. 그리고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다.
- 16. 내게는 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인도해야 한다. 그 양들도 내 음성을 들을 것이다. 그래서 한 목자 아래서 한 무리가 될 것이다.
- 17.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나의 목숨을 스스로 버리기 때문이다. 나는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 18. 아무도 내게서 목숨을 빼앗을 사람이 없고, 다만 내 스스로 생명을 내놓는 것이다. 나는 목숨을 내놓을 권세도 있고, 그것을 다시 찾을 권세도 있다. 나는 이 계명을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다."

♡느낌톡톡 아이는 양처럼 머리에 수건을 동그랗게 말아 쓰고, 엄마는 목자처럼 막대를 드세요. 양이 "음메 물이 먹고 싶어요. 배고파요. 화장실 가고 싶어요" 하면 양을 인도하는 놀이를 해보세요.

#### ♡이야기톡톡

예수님은 사람들은 양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은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들은 먼 곳을 잘 볼 수도 없어 길을 잃기 쉬워요. 또 양은 겁이 많은 동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들은 목자의 목소리를 잘 듣고 따라가야 해요. 목자는 양들은 좋은 곳으로 데리고 가요. 맑은 물이 있는 곳, 맛있는 푸른 풀밭으로 데리고 가요. 때로는 늑대나 무서운 곰이 나타나면 단단한 막대기로 막아주지요. "나는 착한 목자란다. 나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릴만큼 사랑하지"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분이랍니다.

♡기도풍풍 나는 좋으신 목자인 예수님만 따라가는 착한 양이 될거예요. 아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온 가족들이 믿음 안에서 늘 강건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아픔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연약한 가족들은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가족들은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가족 간에 힘든 관계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더 풍성한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성경봉독 ..... 시편 106편 1~8절 ..... 인도자

- 1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 2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라
- 3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 4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 5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 6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 7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 8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 말씀 ..... 진심으로 감사하는 날 ..... 인도자

가을은 병충해와 장마와 태풍, 무더위를 견뎌온 식물들이 열매 맺는 계절입니다. 온갖 어려움을 이기고 결실하는 식물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그런 인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조들이 물려준 고유명절 중에서 추석은 가장 자랑스러운 민족의 절기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추석명절을 지키며 적어도 세 가지 일을 하였습니다. 먼저 한 해의 농사가 잘 되도록 햇빛과 비를 적당히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드렸으며, 낱아서 길러주신 부모님께 감사하고, 또한 흠어져 살던 친척들을 불러 모아 햇곡식으로 음식을 준비하여 사랑과 우애를 나누는 잔치를 벌였습니다.



### 가정예배 2.(어린이 예배)

서로 돕는 우리집이 좋아요

성경읽기: 출애굽기 4:10-17

찬양하기: 짝트네

(쉬운 성경)

- 10.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전에도 그랬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지금도 저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저는 말을 느리게 할 뿐만 아니라 훌륭하게 말하는 법도 모릅니다."
- 1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를 만들고, 듣지 못하는 자를 만드느냐? 누가 앞을 보는 자나 앞을 보지 못하는 자를 만드느냐? 나 여호와와가 아니냐?"
- 12. 그러니 가거라! 내가 네 입과 함께 하겠다. 내가 할 말을 내가 가르쳐 줄 것이다."
- 13. 그러나 모세가 말했습니다. "주여, 제발 보낼 만한 능력 있는 사람을 보내십시오."
- 1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화를 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레위 집안 사람인 네 형 아론은 말을 아주 잘 하지 않느냐? 아론이 너를 만나기 위해 오고 있는 중인데, 아론은 너를 만나면 기뻐할 것이다."
- 15. 네가 할 말을 내가 가르쳐 줄 테니, 그것을 아론에게 말해 주어라. 너희 두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내가 가르쳐 줄 것이다."
- 16. 아론이 너를 대신해서 백성에게 말을 할 것이니, 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아론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아론이 너를 대신해서 그 말을 할 것이다."
- 17. 네 지팡이를 가지고 가거라. 그것을 가지고 기적을 보여라."

♡느낌톡톡 가족사진을 보며 한명씩 사진에 뽀뽀하며 말하세요 "OO 사랑해요"

#### ♡이야기톡톡

엄마가 아기돌볼 때 도와요. 땀 흘리며 일하는 아빠에게 물을 갖다 드려요. 성경책 읽으시는 할아버지에게 돋보기를 갖다 드려요.

우리 가족은 서로 사랑해서 도와줘요.

힘든 일만 지키는 나쁜 이집트의 왕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워했어요. "모세야 바로 왕에게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해내겠다고 가서 왕에게 말해라"

모세는 말을 잘하지 못해요. 걱정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형 아론을 시켜 돕게 했어요.

아론형은 모세를 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기도하며 도와주었어요. "잘한다 모세" 응원하며 칭찬해주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서로 돕는 가족이에요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가족을 주셨어요.

♡기도풍풍 혼자 하기 힘든 일을 서로 돕는 행복한 우리 가족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 성묘예배순서

- 예식사(인도자) :  
오늘 우리 가족들은 고 ○○○씨의 무덤 앞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 신앙고백(다같이) :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합니다.
- 찬 송(다같이) : 고인이 즐겨 부르던 찬송
- 성경봉독 : 히브리서 11장 13-16절
- 권면과 위로

#### 고향

추석 연휴가 되면 민족 대이동이라 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게 됩니다. 예전엔 수많은 사람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얻은 귀성 열차표 한 장을 들고 고향을 찾았습니다. 우리 민족은 고향 지향적인 민족입니다. 한국 사람은 아무리 타향에 오래 살아도 그곳은 어디까지나 타향이지 고향이 될 수 없다는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고향은 오직 한 곳, 자기의 뿌리가 있는 그곳이란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 사람들은 고향에 대한 향수가 참으로 많은 민족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고향을 떠나 타국에서 총리까지 지낸 요셉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온갖 부귀영화를 누렸고 타향에서 크게 성공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늘 고향을 그리워했습니다. 그의 아버지였던 야곱이 유언을 하면서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나를 헛 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 내 선조들 옆에 묻어다오."(창49:29)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요셉도 그의 아들들에게 똑같은 유언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죽을 터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어 이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땅으로 올라가게 하실 것이다. 너희는 그 때 여기에서 내 뼈를 가지고 그리로 올라가거라."(창50:24~25)고 말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되거든 반드시 돌아가고, 그 때 내 유골도 가지고 고향으로 가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 영원한 고향이 있습니다. 바로 영원한 천국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이 땅의 삶을 나그네의 삶으로 알고, 언제나 내가 가야할 본향, 저 천국을 사모했습니다. 그랬기에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위엿 것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고향을 찾는 이 계절에 우리가 가야할 고향인 천국을 사모하고, 이 땅엿 것이 아니라 위엿 것에 소망을 두고, 위에 보화를 쌓을 줄 아는 온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 찬 송(다같이) : 491장
- 주기도문(다같이)

## 가정예배 1.

### 사랑으로 구원을 확신하는 가정

말씀: 요한1서 4:7-16

찬송: 563장(통 411장) 예수 사랑하심은

☛**기도하기** 가족 중에 한 명이 기도를 합니다.

☛**성경읽기** 가족 중에 한 명이 오늘의 메시지를 낭독합니다.

7.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8.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9.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11.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12.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13.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므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14.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15.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16.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 ☛**말씀 나누기**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이란 예수님과 신비한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갈 2:20)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영적인 신비가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함으로써 이뤄집니다(13, 15절).

구원이 이처럼 신비로운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한은 그 증거를 여기서 확실하게 보여 줍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8절). 구원은 반드시 서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그분을 구주로 시인함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면, 그 구원의 확신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 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듯이 서로 마음에 맞기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기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형제를 사랑하셨기에 그를 사랑하는 것이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가르칩니다.

이는 가족 사이의 사랑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가족이면 당연히 서로 사랑해야겠지만, 세상에는 가족의 불화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배에 꾸준히 참석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사이에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 사랑을 가정 내에서도 실천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큰 비극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가족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합시다.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무조건 서로 사랑합시다.

### ☛**은혜 나누기**

1.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2. 우리 가정이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고, 오늘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 ☛**함께 기도하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늘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주기도문으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